매출 2000억…경영·시민복지 '두 토끼' 잡았다

광주도시공사 창립 20주년 성과와 비전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일로 창사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89년 9월 공영개발사업단으로 첫 발짝을 뗀 도시공사는 1993년 9월 1일 광주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변신했으며, 창사 20년 만에 연간 2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공기업으로 성장했다.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공기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광주도시공사는 이제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핵심 공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재무안정 매진 순익 5.5배 증가

도시재생·임대주택운영·장례사업 육성

광주도시공사의 모체는 무주택 서민에게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공영개발사업단이다. 도시공사는 이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분 아래 그동안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며 조직과 경영이 침체된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1925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공사 창립 이후 최대의 재무적 성과를 거두며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8월 홍기남 사장이 취임한 이후 고질적인 적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체적으로 경영실태를 분석해 '선진화 계획'을 수립, 흑자경영을 목표로 전사적인 경영안정에 나선 때문이다. 이 선진화계획은 4대 전략목표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180세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매출액·영업이익률·당기순이익 10% 초과 달성 및 고객만족도 매년 전국 3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경영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재무 안정성 확보'를 선정한 도시공사는 곧바로 재고자산매각 특별팀(T/F)을 운영했다. 특별팀에서는 선진화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내에 수요자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토지리턴제와 ▲ 중도금 및 잔금의 100%를 시중은행에서 대출할 수 있는 중도금 대출제를 시행했다. 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토지거래시 지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중개수료제도 개선안을 도입하고 ▲시장의 필요에 맞춰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전면 재실시, 이미 수립된 계획을 변경하는 토지리폼제를 전격 도입했다.

이 같은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과 지난 2012년 최초로 공급하기 시작한 진곡산업단지 공장용지와 증심사지구 및 출자자산 미매각토지가 100%(출자자산은 96.6%) 분양 완료됐다. 또,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지속됐던 혁신도시와 평동산단도 각각 61%와 68%가 매각됐다. 이에 따라 도시공사는 2012년 결산 결과 공사창립 이후 최대인 1925억 원의 매출액을 달성했으며, 영업수지비율도 3년간 평균인 105%에서 130%로 개선됨으로써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5.5배가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홍기남 사장

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기업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인 고객만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의 고객만족도(CS)가 지난 2009년 전국 1위를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 2012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77.85점을 얻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확산한 때문이다.

도시공사는 우선 CS팀을 전면 교체한 뒤 최근 5년 동안의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했다. 또, 고객 전수조사를 통한 Needs 분석 및 고객 세분화, CS과제 발굴, 서비스이행 표준점검 등을 실시함으로써 사업별, 고객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기반을 마련했다.

도시공사는 또, 조직 활성화를 위해 그간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을 타파하는 대신 성과주의 조직문화 확산에 나섰다. 도시공사는 특히, 지방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최초로 '창조적 행복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사는 이를 위해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012년에만 77억 원을 투자하고 ▲광주지역 종합병원 5곳과 협약을 체결, 영세민들에게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시작했다. 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도시공사의 미매각토지를 관리하게 하며 일자리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등 양적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광주만의 특화된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도시공사의 고객만족도는 2011년 전국평균보다 낮은 77.85점에서 2012년에는 전국평균인 78.61점을 웃도는 84.42점을 기록,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2위를 차지했다.

도시공사는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임대주택관리운영 ▲장례사업을 '3대 스타사업'으로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내부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젊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회사경영에 반영하기 위한 '주니어 보드제'와 '멘토링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홍기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광주도시공사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공기업으로, 광주시민이 고객이고 주인"이라며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영선진화 사업과 창조적 행복복지를 차질없이 추진해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가 지난 1일로 창사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3년 9월 1일 광주시에서 전액 출자한 지방공기업으로 출발한 광주도시공사는 창사 20년 만에 연간 20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거대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사진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사옥.

그림으로 되살아난 우리마을의 역사

남구 월산 4동 주민주도형 벽화 그리기

남구 월산동 주민들이 직접 붓을 들고 자신이 사는 지역의 역사를 벽화로 남기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진〉

광주시 남구는 2일, 월산4동에서 각 마을의 역사와 유래가 담겨 있는 '주민주도형 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 기획으로 시작된 마을벽화 사업은 지금까지 부녀회, 아동센터 어린이, 대학생 등 350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며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구 수박등 1길과 3길 구간, 수박등 2길 구간의 벽에는 남부시장 인근에 있던 보성보, 벧엘교회 부근 뽕뽕다리 등 옛 마을의 흔적과 기억을 담은 100여 점의 그림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다.

김종민 월산4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마을의 역사와 주민들의 진솔한 삶을 남기는 의미있는 행사"라며 "마을벽화를 이 곳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는 오는 5일 동신대 사회복지관에서 주민들을 초청해 '월산4동 주민주도형 벽화그리기' 제막식을 진행한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시티 뉴스

옛 남구청사 부지 매각 공개입찰 방식 전환

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된 옛 남구청사 매각작업이 새 주인을 찾지 못해 또다시 공개입찰 방식으로 바뀌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 남구는 옛 남구청사 공영주차장 부지를 제외한 토지(1만8964㎡)와 건물(9975㎡) 등에 대한 공개입찰을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on-bid.co.kr) 시스템을 통해 일반경쟁입찰로 매각되며, 부지 매각의 최저입찰가는 287억339만7000원이다. 입찰 공고기간은 오는 9일 오후 4시까지다. 문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 센터(1588-5321) 또는 남구청 회계과(062-607-3021).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국무총리 표창

광주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등이 주최한 '2013 전국 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에서 전국 212곳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사회공헌기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북구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다문화가족 문제 예방과 다문화 이해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가족 생활정착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북구는 다문화 음식점인 무지개마을을 운영하고, 모국방문 사업 일환으로 35세대를 선정·후원하는 등 다양한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한 점도 큰 호응을 얻었다.

/이종행기자 golee@